

KIA "올인"

"잠실 3연전에 올인"

마지막 남은 '가을잔치' 초대장을 놓고 잊지못 뒤치라기 4위 다툼을 벌이고 있는 KIA와 두산이 16, 17일 잠실벌에서 진검승부를 펼친다. 13일 현재 KIA와 두산은 각각 110경기(잔여 16게임)와 109경기씩(잔여 17게임)을 치른 상태. 올 시즌 상대 전적에선 KIA가 7승5패1무로 다소 앞서있다.

주말 잠실서 두산과 3연전

4위 확정 갈림길...총력전

김진우·그레이·전병두 선발 출격

양팀 맞대결은 오는 21~22일 광주 2연전을 포함, 5게임. 이 가운데 주말 잠실 3연전은 사실상 4강행을 결정짓는 마지막 승부처다.

따라서 양팀은 이번 주말 3연전에 모든 전력을 총 동원하는 '올인' 작전에 나선다.

KIA는 우선 '원투 펀치' 김진우(16일)와 세스 그레이싱어(17일·더블헤더 1차전)를 최전방에 내세운다.

나머지 3선발은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좌완특급' 전병두를 필승카드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중간과 뒷문은 시즌 막판 '환상의 계투조'로 떠오른 '한기주-윤석민' 콤비가 맡는다.

반면 1선발 다니엘 리오스가 부친 병환으로 급히 미국으로 건너간 두산은 KIA에 비해 마운드 운용이 여의치 못한 상황.

리오스가 16일 귀국, 17일 더블헤더 1차전에 예정대로 나선다 할지라도 제 컨디션으로 던질 지 알 수 없다.

두산은 이같은 마운드의 열세를 막강 화력으로 대신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6경기 타율 0.389, 0.375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 김동주, 홍성흔이 부상 투혼을 발휘하며 중심 타선을 이루고 있고 재간동이 톱타자 이종욱의 '발아구'가 위협적이다.

잔여 경기 일정상 두산에 불리한 KIA는 이번 두산전에서 참패할 경우 '4강의 꿈'을 접어야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올 수도 있다.

7승1무5패	전 적	5승1무7패
0.234	타 율	0.232
2.29	방어율	2.88
39	득 점	39
94	안 타	96
17	2루 타	11
3	3루 타	2
1	홈 런	1
10	도 루	12
4	도루자	5
49	볼넷	36
5	사 구	10
83	삼 진	74
12	실책	5
0.299	장타율	0.276
0.321	출루율	0.390

KIA는 롯데와 4경기나 잡혀 있으나 6승8패로 뒤져 있어 완승을 장담할 수 없는 데다 현대, 한화 등 상위 2팀과도 각각 3경기, 2경기씩을 남겨뒤 승리 싸움이 만만치 않다.

KIA는 올 시즌 현대와 한화에 4승11패, 6승10패로 절대적인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주말 3연전은 두산과 KIA의 전력이 '박빙'인 만큼 어느 한 팀의 3연승으로 끝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하지만 3연전 결과가 어느 한팀에 몰아주기식으로 3연승과 3연패로 끝난다면 4위 싸움은 예상보다 일찍 정리될 수도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KIA 입단 양현종(동성고) 계약금 2억

광주 동성고 양현종(18·사진)이 새끼 호랑이가 됐다.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는 14일 신인 2차 드래프트 1번(전체 1번)으로 지명된 투수 양현종(동성고)과 계약금 2억, 연봉 2천만원에 입단계약을 맺었다.

왼손 투수인 양현종은 183cm, 78kg의 체구로 140km를 넘나드는 빠른 공과 스트라이크존 구석을 찌르는 변화구가 강점이라는 평가다.

특히 한 경기당 삼진 10개 안팎을 잡을 정도로 경기 운영능력도 뛰어나 즉시 전력감으로 기대되고 있다.



양현종은 17일부터 쿠바에서 열리는 세계청소년 야구선수권대회에 대표선수로 참가한다.

KIA는 이밖에 2차 6번(전체 47번)으로 지명된 내야수 김주현(덕수정보고)과 계약금 5천만원, 연봉 2천만원에 계약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청소년야구대표팀 출국

18일 파나마와 1차전

허세환 감독(광주일고 감독)이 이끄는 청소년야구대표팀이 쿠바에서 열리는 제22회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 참가차 14일 오후 출국한다.

국제야구연맹(IBAF)이 2년마다 개최하는 이번 대회는 17일부터 27일까지 열흘간 쿠바 상티 스피리투스, 치에고 데 야빌라, 비야클라라 등 세 곳에서 열린다.

12개국 참가, 예선 2개조로 나뉘어 풀리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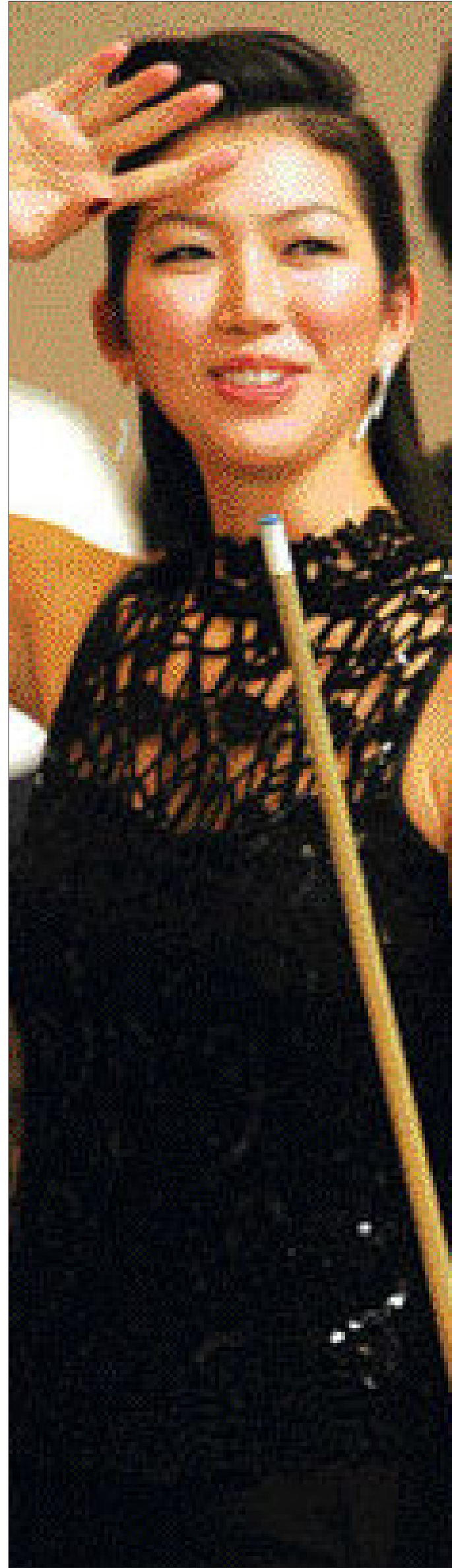
그전을 벌인 뒤 8강 결승토너먼트를 거쳐 최종 우승팀을 가린다.

한국은 1981년, 1994년, 2000년 이 대회에서 우승했고 이번 쿠바대회에서 6년 만에 우승 탈환을 노린다.

각각 프로야구 연구 구단 입단이 확정된 양현종(동성고·KIA), 김광현(안산공고·SK), 임태훈(서울고), 이용찬(장충고·이상 두산) 등이 마운드를 지키고 이두환(장충고), 김강(광주일고) 등 고교 야구 강타자들이 방망이 솜씨를 뽐낼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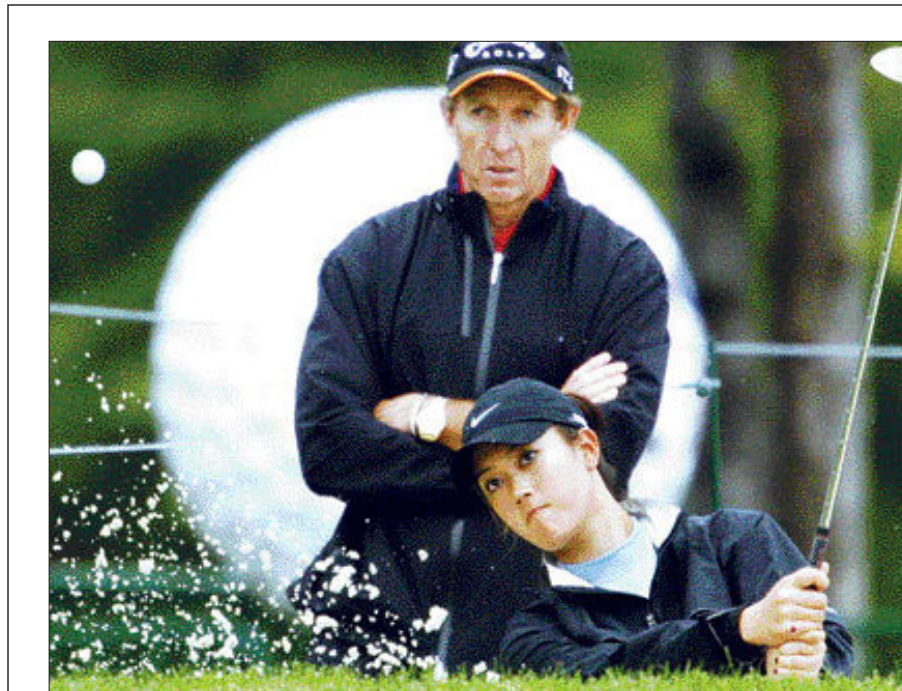
한국은 18일 파나마와 조별리그 1차전을 치른다.

'검은 독거미'의 두 얼굴



14일 오후 인천 영종도 히얏트호텔에서 열린 2006브랜스워코리아 프로폴투어 나인볼 포켓경기에서 자네티리의 두얼굴. 이날 처유림과 경기에서 자네티리가 먹이를 노리는 맹수의 매서운 눈초리로 조준을 하고 있는 모습(왼쪽)과 승리후 여유로운 미소로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모습 이 사웃 대조적이다.

/연합뉴스



위성미가 14일 미국 미스틱록 골프코스에서 PGA 84럼버러블랙스에 대비해 코치인 데이비드 레드베터(뒤)가 지켜보는 가운데 벙커샷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위성미, 샤라포바에게 배워라?"

美 '골프다이제스트' 기고문 눈길

위성미(17·나이카골프)는 마리아 샤라포바(19·러시아)에게 배워야 한다? 미국의 권위있는 골프잡지 '골프다이제스트'가 위성미와 샤라포바를 대조한 기고문을 실어 눈길을 끈다.

골프다이제스트 인터넷판은 14일(이하 한국시간) '명암 잇갈리는 디바(Contrasting Divas)'라는 제목으로 샤라포바와 위성미를 비교했다.

특히 둘은 10대의 나이로 나란히 테니스와 골프계에서 각각 '테니스 요정', '천재 소녀'라는 닉네임을 얻으면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샤라포바는 최근

US오픈 우승 등 메이저대회에서 2승을 거두면서 부와 명예를 더욱 손에 넣은 반면 미셀 위는 아직 자신을 찾아 헤매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고문은 샤라포바가 더욱 훌륭한 선수가 되기 위해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스위스)나 감서버 엔디 로티(미국)에게 도전할 필요성을 결코 느낀 적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는 미셀 위가 "남자대회에 나가면 배울 것이 많다"는 이유로 PGA 대회에 자주 출전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자신이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시계 제조업체가 타이틀 스폰서를 맡은 유럽프로골프(EPGA) 투어 대회에도 출전하는 등 두모든 도전을 계속하고 있는 행태를 꼬집은 것이다.

'장 출혈' 박찬호

금주 말팀 합류

장 출혈 수술 후 부상자 명단에 올랐던 박찬호(33·샌디에이고 파드리스)가 빠르면 이번 주말 팀 훈련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박찬호는 14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www.chanhopark61.com)를 통해 근황을 소개하며 "며칠 전부터 운동을 조금씩 시작했는데 이젠 땀을 흘릴 수 있게 됐고 공도 던지고 있다. 지금은 개인적으로 운동하고 있지만 이번 주말부터 팀에서 훈련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지난 달 24일 장 출혈의 원인으로 알려진 '매켈게일' 부분 지혈 수술을 받았던 박찬호는 수술 후 3주여 만에 팀으로 돌아와 컨디션을 끌어 올릴 전망이다.

그는 이어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훈련을 시작할 것 같다. 시즌이 끝나기 전에 복귀할 수 있다면 선발은 무리이고 구원으로 등판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며 볼펜진 합류 가능성을 암시했다.

그는 또 "수혈을 받고 나서 조금씩 기력이 생겼고 지금은 몸 무게가 많이 빠져 있지만 컨디션은 관촬은 것 같아 운동을 하고 지내고 있다. 그저 팀이 포스트시즌에 진출하기만을 바라며 또 다른 현실에 노력할 뿐"이라고 소망을 드러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김병현 내년에도 콜로라도서 뿔것"

美 현지 언론 보도

미국프로야구 페넌트레이스 종료가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콜로라도 로키스가 김병현(27)을 내년에도 붙잡을 것이라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콜로라도 지역 언론인 '로키 마운틴 뉴스'는 14일(한국시간) 인터넷판에서 콜로라도가 김병현과 함께 제이슨 제니스, 제프 프랜시스, 애런 록 등을 시즌 선발 로테이션에서 활약한 4명을 내년에도 그대로 선발로 기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 신문은 올해 선발 투수 중 조시 포그만 탈락했고 데니 바티스타, 제레미 아벨트 등이 그를 대신할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김병현은 올 1월 콜로라도와 연봉 125만 달러, 2007년 바이아웃(재계약에 실패했을 경우 구단으로부터 받는 위약금) 옵션 25만 달러 등 총 150만 달러에 계약했다. 이어 투구이닝이 170이닝을 넘기면 210이닝까지 10이닝당 20만 달러를 받는 인센티브도 추가했다.

또 김병현은 내년에도 콜로라도 유니폼을 입을 경우에는 기본 연봉을 250만 달러로 상향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김병현이 내년에도 콜로라도에 남을 경우 바이아웃 옵션 대신 연봉 250만 달러를 받게 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